

야권, 광상도 뇌물 무죄 판결에 한목소리 비판

법원, 50억 뇌물수수 1심 무죄 민주 "민낯 드러난 방탄 판결" 정의 "법조비리 제식구 봐주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

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광 전 의원 아들을 전문성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국민을 자괴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故(고) 노회찬 전 의원이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특권층 1만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판결 받은 조국 전 장관,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고 유죄 판결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달라는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이 나와도 무죄 판결 받은 광상도"라며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50억 클럽'과 연관됐다고 거론된 사람들은 어제 재판을 받은 광상도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한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검사, 판사, 언론인들"이라며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에 여러 우려가 있었다. 법조계, 특히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때문이다. 의혹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수사는 너무 조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기중 부대표는 "상급심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와 혐의 입증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이번 판결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 항소심 대응과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청년정책, 문자로 알려드려요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정책 제공

광주시가 청년정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2월부터 정책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년사업 유관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방문해 문의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야 했다.

광주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모사업 등을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통합 플랫폼 조성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인공지능(AI) 모의면접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2023년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93개 청년정책과 자치구, 중앙부처

등의 청년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때 청년들이 관심분야를 선택하도록 해 해당 분야 사업 신청시기가 결정될 때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정보가 적기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4개 사업 1852억원의 청년사업을 시행했으며, 직·간접 신청자는 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93개 사업 2053억원 규모의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박상지 기자

"무안공항 입국 외국인들 잠적... 전남도, 안전장치 필요"

나광국 "불법체류 양산 안 돼"

최근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20여명이 잠적한 것을 놓고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관광문화체육국과 전남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나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 입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6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금액이다"며 "12명의 관광객이 잠적할 당시 13명의 잠적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데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남도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태국인 관광객이 올 예정이며 향후 베트남에서도 2800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사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할 때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황지 기자

김원이 "의사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동시 추진해야"

김원이(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증원될 의사 정원 속에는 의대 신설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과 의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 동시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사정원 증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반드시 추진할 거다. 믿어달라"고 답한 내용을 이날 재확인했다.

또 당시 이기일 복지부 차관이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은 의대 증원과 같이 맞



물려있다"고 말했던 점도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중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조익문 사장으로부터 현장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제실을 찾아 지하철 운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도음식문화큰잔치 'K컬처 100선' 선정... 세계화 발판

관광공사, 해외 주요도시서 홍보 10월 6~8일 여수박람회장서 개막 남도 미식투어 등 외국인 참여확대

전남도가 매년 여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돼 남도 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예술·체육·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한국 문화를 즐기도록 선정했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00선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32곳과 해외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29회째를 맞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국제행사로 확대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994년부터 시작된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7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미식관, 미식산업관을 신규 운영하고, 주한대사관을 통한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남도음식 요리경연대회와 남도 외국인 미식투어 등도 운영해 외국인 참여

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명인관에서 남도음식명인 9명의 요리비법을 배우고 명인음식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남도 섬 음식 등 스페셜 전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K-푸드의 원류로서 남도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국어 누리집도 조기 구축해 남도 음식의 해외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선정돼 2025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확대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도음식이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민원인에게 직접 듣는다' 광주시, 청렴해피콜 본격 시행

만족도 조사... 기동반 편성 점검 불만족 196건→119건으로 감소

광주시는 10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묻는 2023 청렴해피콜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렴해피콜은 청렴도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했는지 여부와 부패행위, 불만족 사유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듣고 해소한다.

광주시는 청렴해피콜을 시행한 결과, 불만족 민원이 2021년 196건에서 2022년 11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청렴해피콜 대상을 지난해 4965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대폭 확대, 공직 업무가 보다 청렴하게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는 감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기동반을 현장에 투입,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부당 사

항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수시 소통할 수 있도록 청렴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우수부서 포상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갑재 광주시감사위원장은 "청렴해피콜과 청렴기동반을 적극 활용해 부패행위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겠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광주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동 1위를 달성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